

남궁민·이시연, 불화설 나온 이유

등록 2024.09.03 00:00:00 | 수정 2024.09.03 08:36:59



[서울=뉴시스] 이시연, 남궁민. (사진 = 유튜브 채널 '잔한형' 캡처) 2024.09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절친한 사이인 배우 남궁민·이시연이 불화설을 해명했다.

2일 유튜브 채널 '잔한형 신동엽'에 업로드된 '남궁민 이시연 {잔한형} EP. 57 불화설 해명합니다! (feat. 결혼식, 커피차)'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식에 불참해서 생긴 불화설에 대해 설명했다.

남궁민은 "(이시연이) 내 결혼식에 안 왔다"라고 서운해했다. 이시연은 "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"라고 억울해했다. 남궁민은 이내 "괜찮은 게 나도 안 갔었다"라고 웃겼다.

이시연은 "나는 (결혼식이) 제주도에서 진행됐고, 코로나 때라 50명이 왔다"라고 항변했다. 남궁민은 "(난) 안 와도 된다는 느낌이었잖아"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이시연은 "형님만 안 왔겠냐. 연예인 친구들은 일부러 한 번에 그냥 다 뺐다"라고 반박했다.

이시연은 "(스타인) 형이나 승헌이 형 같은 경우엔 (드라마 촬영)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. 근데 나는 그게 반반"이라고 토로했다. 남궁민은 "송승헌 형 결혼할 때 갈 거냐"고 묻자, 이시연은 "그 형은 결혼을 안 한다고 했다"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